



특설인터뷰

대진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장 배규한

“中央정부 개발계획에 포천시 발전계획 포함시켜야”

포천지역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人材들의 협의체 구성해야



1992년에 설립한 대진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는 포천의 지역경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94년부터 연구소 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배규한(사진) 소장을 만나 포천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지역경제연구소는 그동안 지역발전 전략, 정책을 연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에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배 소장은 1995년도에 포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책임자로 활동했고 1997년도 동두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의정부시를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발전, 전략, 개발정책 등을 수시로 협의하고 추진해왔다.

경기도 제2정 신설을 위해 구성했던 경기북부발전위원회에 지역경제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참

여해 제2정 설립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배 소장은 포천시 지역경제의 수준에 대해 비교의 대상 세계의 모든 지역과 비교해볼 때 중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중하위 수준이다. 물론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한 것은 아니다. 주요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의 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국내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도농복합도시로서 뒤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중상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상위 수준은 포천시가 그동안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된 수준이라고 보기보다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지방자치체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발전이 가능했던 과거에 비해 지방자치체 실시이후 지역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발전 욕구는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의 결핍과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결핍은 스스로 발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약한 경제력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

회간접시설의 태부족이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교통문제를 야기시키는 도로개설이 미흡하다. 아울러 철도 개설도 되어 있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하나 제도적으로 중첩된 규제를 들 수 있다. 중첩된 각종규제의 철폐 또는 개선이 없는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 동력은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경기북부지역에 자주적인 지자체 중심의 지역발전 노력은 상당수이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등 정부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위미군주둔지역을 활용하는 토지가 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지역발전의 성과라고 꼽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 낙후도시인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 양주시 등이다. 반대로 발전도시는 남양주, 구리, 양평, 과주, 김포 등이다. 이들 도시에는 국가의 여러 가지 상위계획 등에 의해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낙후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포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방안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경제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성화가 필요하다. 포천지역에는 가꾸, 식음료, 일반특용작물, 축산물 등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포천지역의 경제력확대를 위해서는 포천 주변에 있는 서울을 활용하고 의지해야 한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포천의 경제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포천지역의 대규모관광자원과 연관시켜 진행하면 효과적이라고 기대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것인가? 배 소장은 지역발전 핵심인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핵심인재들은 산학관세 부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인구의 많고 적은으로 규모를 파악했는데 최근에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달라지고 있다. 포천지역 발전을 위해 인재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재들은 대학에서, 시민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 특히 이 협의체는 장기적인 협의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목적과 관계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7 대들보자동차공업사

경정비·뱃터리·카에어콘·타이어출장수리



대표 백옥현

“신뢰와 정직, 철저한 A/S도 부분정비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라지만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뿐입니다”라며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백 대표의 첫마디다.

대들보자동차공업사(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476 대표 백옥현)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과 두터운 고객 층을 형성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를 총동원해 고객들에게 업소의 존재를 기억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최대 보상 네트워크와 탁월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삼성화재 삼성에니카의 지정업체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지도나 서비스 면에서 삼성화재 고객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지정업체들을 위한 교육이나 고객관리, 정보제공 등을 본사에서 도와주고 있어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백 대표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가득이나 어려운 부분정비업체들에게 이종고를 주고 있다”며 “자기를 업체가 만드는 제품만 순정부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제품은 비 순정부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어 오히려 값비싼 제품(순정부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비 순정부품의 질은 매우 우수해 거의 순정부품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백 대표는 “정기적인 차량 검사는 소중한 가족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며 차량의 수리비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차량검사의 중요성을 말했다.

대들보자동차공업사는 고객들을 위한 친절과 한번 정비한 부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기존의 고객유지는 물론 신규고객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기적인 고객들과의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예약접수 절차, 정비 차량에 대한 리플렛 실시로

친절은 기본, 한번 정비한 부분은 끝까지 책임보장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1의 친절한 공업사로

예전에 형님이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백 대표도 이 업계에 뛰어들어 상계동과 공학, 양평 등에서 약 20여 년 넘게 다양한 정비기술을 익혀온 것이 지금의 경쟁직업이 되었다고 한다.

지난 97년 현 덕일주유소 옆에서 부분정비업을 시작으로 2000년 정교리에 위치한 대들보 카센터 운영과 지난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다 넓고 쾌적한 현 위치로 이전했다.

3년 전부터 삼성에니카 브랜드 간판을 걸고 영업망을 구축해온 대들보자동차공업사는 열악한 지역입지조건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규 고객확보와 고객 재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현재 대들보자동차공업사는 업무 보조를 위한 경리와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정비사 두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 명의 직원들은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공간제공과 친절, 질 높은 서비스와 기술력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들보자동차공업사가 지역에서 고객들이 믿고 찾는 제1의 자동차공업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의전화) 031)542-6527 HP 017)251-581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대들보자동차공업사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과 두터운 고객 층을 형성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를 총동원해 고객들에게 업소의 존재를 기억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4

한국 노인의 월평균 소득?

2004년 전국 2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2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 금액은 노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평균소득 28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개인별로 보면 60만원도 채 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77.4%나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인은 12.3%에 불과했다. 2005년 2/4분기 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이 194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들의 삶 자체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2005년 가구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노후준비 수단으로 보험, 공공기관연금 등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은행저축, 개인연금 순이며, 의외로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다. 즉, 노후준비 수단으로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됐다. 또한 서울시민 10명중 6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4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취업전문 사이트 조사에서 정규직 직장인 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 직장인 10명중 7명은 실업공포(?)에 대변될 만큼 고용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새롭게 불어닥치는 구조조정과 조기퇴직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평생직장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현재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어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60세 이후 노후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비가 절대적으로 절박하고, 절실한 현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06년 1/4분기 소비자태도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는 가구의 59%가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재테크 한다고 응답했다. 질병 등 재난대비가 재테크의

목적이거나 가구는 16.7%를 차지했으며, 주택과 자녀교육비 마련이라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11.7%와 1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재테크의 목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지목했고, 주택마련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 기업연구소에서 서울에 사는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아는 이들이 더러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장차 결혼해서 살집을 그려보라 하였다. 예쁜 강아지 집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가져다줄 방을 마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85세를 지나 수명이 자꾸만 늘어가는 우리나라는 부인 혼자서 쓸쓸히 7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여성이야말로 연금이 더더욱 필요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경제력 없는 시어머니에게는 7년이 100년 보다 더 길고 지루한 노후가 될 것이다. 제 2의 퇴직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대



이미정
글로벌경영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가전일을 고려하라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고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유권을 이전에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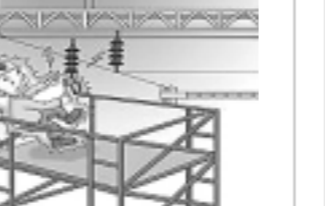
산업안전사고 예방

낙뢰에 의한 감전되어 추락, 사망

▶재해발생 개요
2007년 3월 28일 15시 40분 경 00 전철 전력설비 신설공사 현장에서 전철전공인 파재자(41세, 남)가 천동·번개가 치고 비가오기 시작하자 작업철수를 위해 전차선 위에 있는 공구를 정리하려 전차선을 잡는 순간 낙뢰에 의한 감전으로 이동식 비계에서 전철선로 바닥으로 추락(H=1.5m)하여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부상당한 재해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약전후시에 작업실시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비·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에 도 낙뢰에 의한 감전 위험이 높을 전자선로 장소에서 작업 중 예 첩수가 늦어져 낙뢰에 의한 감전 후 추락사고 발생.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약전후시에 작업실시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비·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특히 감전 위험이 높은 전자선로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며, 감전 발생 시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고 작업관계자들은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

나. 피뢰설비 또는 단락장치 실시
작업장소가 낙뢰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근로자 감전방지를 위한 피뢰설비(예:이온방전형, 정전유도형 피뢰설비 등)를 유도되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 작업 시 전자선로의 지지대, 전차선, 조가선 등에 단락 접지공구를 레일과 연결하여 낙뢰발생시 신속하게 대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 두개 사업장을 운영중인 대표의 경우는?

2개 사업장 모두에서 내야

각 소득액의 합이 최고등급 이상일 경우 비율조정 할 필요 있어

신규사업장에서도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다닐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 소득수준에 비례해 납부하기 때문이다.

단,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세 부담선 방식이 있다. 납부액 계산 방법은 3가지다. 기준은 최고소득등급인 45등급(360만원)으로 구분한다.

우선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액의 합이 360만원 미만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내면 된다. 두 번째는 한 사업장에서만 월평균 소득이 360만원 이상이

면 그 사업장에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모두 360만원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 방식은 두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액의 합이 360만원 이상인 경우다. 가입자는 각 사업장별 소득액에서 전체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K씨는 매달 A사업장에서 280만원을 B사업장에서 100만원을 벌고 있다. K씨는 전체 사업장에서 38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면 된다. A사업장 연금보험료를 낼출하면 (표)과 같다. K씨는

A사업장에서는 12만 15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게 된다. B사업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4만 1400원이다. K씨는 한달에 연금보험료로 총 16만 1500원을 내게 된다.

▶전체사업장 소득에서 A사업장의 소득 비중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조정
360만원(표준소득월액 상한가)×280/380=92655원
②A사업장 연금보험료 : 265만원은 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 등급에서 39등급에 해당함.
267만원(39등급의 표준소득월액)×4.5(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12만150원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